



한국노벨과학포럼

보도자료

사무총장	박원수	배포일	2022.07.06	전화	1644-1525
이사장	정윤희	주소	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11길33, 경원빌딩 4층		

[성명서] 허준이 교수 필즈상 수상 환영

- 한국노벨과학포럼 회원일동은 7월 5일 발표된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을 크게 환영합니다.
- 이 상은 1936년 제정되어 수학계에 학문적 성취가 높은 40세 미만의 학자를 대상으로 매 4년마다 발표하는 ‘수학계의 노벨상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
- 한국노벨과학포럼 회원 일동은 이번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식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.
- 동시에 이번 허준이 교수와 같은 인재들이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탄생할 것 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.
- 수학 천재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올바르게 설계되고 작동해 왔는지에 따라 노벨과학상 수상자와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식인들이 탄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.
- 만약, 허준이 교수가 어린 시절 학교의 주입식 교육과 암기식 교육에 잘 적응된 학생이었더라면 이번 필즈상을 수상할 수 있었을까요?
- 만약, 허준이 교수가 어린 시절부터 시와 언어를 비롯한 인문학적 소양도 약했고 ‘창의적인 수학’이 아니라 ‘외우는 수학’을 고집했더라면 이번 필즈상의 영광이 있었을까요?
- 한국노벨과학포럼 회원 일동은 허준이 교수와 같은 수많은 인재들이 한국 교육제도의 모순 속에서 사장되고 있다고 믿습니다.
- 이런 모순을 극복하고 허준이 교수 같은 인재를 비롯하여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.
- 이를 위해 우리 한국노벨과학포럼 회원 일동은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2022.07.06

한국노벨과학포럼